

주요개념 : 초등학생, 흡연예방, 건강교육

초등학생의 흡연 지식, 태도 및 경험

김 일 옥*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이 건강에 해로우며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며 다른 약물중독에 이르게 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하나의 기호품으로 인식되어 청소년 뿐 아니라 초등학생의 흡연 경험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계속 빠른 속도로 연소화 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흡연은 중독성이 있으므로 일단 시작하여 습관화되면 교정이 어렵기 때문에 흡연 시작을 예방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성장기 초등학생의 흡연은 뇌세포와 골수 성장력을 억제시키고 기억력 감퇴, 운동기능 저하와 정서적 불안을 초래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뿐 아니라 청소년 비행의 초기 행동이 되기도 한다(신영숙, 현은민, 2000). 초등학교시절은 담배로 인한 유해한 신체반응이나 질병 발생

등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하지 않으므로(문정순 등, 2000; 이은혜, 2000; CDC, 1994) 흡연예방교육을 통한 진입장벽을 일찍이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로 초등학생은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여 약물에 대한 예방교육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들은 친구나 대중 매체 등을 통한 단편적이고 때로는 편협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이은혜, 2000). 그러나 2007년 조사에서 흡연 경험이 있는 전국 중·고등학생 가운데 41.5%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담배를 피워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도에 비해 첫 흡연연령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헤럴드경제, 2008. 10. 01일자) 흡연 예방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그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으나 흡연의 폐해에 대한 심층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초등학생과 청소년은 흡연행동 양상을 형성해가는 시기이므로 WHO(1998)는 이 시기에는 한 두 번이라도 흡연을 시도한 행위는 흡연에 대한 허용적 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흡연에 대한 노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신저자 김일옥 : kimio@syu.ac.kr

출은 장래 흡연으로 가는 주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흡연 경험을 증가를 간과해서는 안 될 실정이다(안은아, 홍해숙, 2001).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시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류황건, 최순연, 김명옥, 2002).

이에 본 연구자는 초등학생을 위한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초등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흡연예방을 위하여 조절 가능한 인자를 규명하고 흡연률을 낮추는 전략을 세우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흡연예방을 위하여 조절 가능한 인자를 규명하고 흡연률을 낮추는 전략을 세우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생의 흡연경험, 흡연교육 경험을 파악한다.
- 2)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을 파악한다.
- 3)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4) 흡연가족 및 흡연친구 유무에 따른 흡연 지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에 소재한 2곳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 4, 5, 6학년 각 2개 학급의 학생으로, 총 631명(남 324명, 여 3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학교장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협조를 구하였으며, 연구대상학급 담임교사에게도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할 것을 설명하였다. 담임교사는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아동에게만 응답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지역편차를 고려하여 강북, 강남 지역 초등학교 각각 1개교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WHO(1982)의 흡연에 대한 조사방법 회의에서 발간된 Guidelines for the content of tobacco smoking surveys of the general population의 설문지를 박영규와 강운주(1996)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초등학생의 인지수준에 맞추어 수정한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흡연 관련 연구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2인에게 내용의 타당도 검증은 거친 후, 최종적으로 흡연 지식에 대한 문항 10문항과 태도에 관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은 자료수집을 허락한 초등학교의 보건교사가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후, 즉시에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07년 4월 말에서 2007년 5월 초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는 SAS Win 8.2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흡연 예방 교육 경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백분율로, 부모의 흡연유무와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흡연을 하는 친구의 유무에 따른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그리고 부모님과

의 관계에 대한 인지와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와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임의 추출법은 사용하지였으며, 서울의 일부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예방교육 경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예방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3~6학년 각각 2개 학급으로 남학생이 324명(51.3%), 여학생이 307명(48.7%)이며, 대부분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571명, 90.5%).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모두 '대학 이상'이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가장 많았으며(57.1%), 어머니의 경우는 '기타(58.6%)'로 뚜렷한 직업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가족 흡연자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429명(67.9%)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나쁘다'와 '매우 나쁘다'가 91.8%를 차지하여 조사 대상 초등학생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생활에 관하여 '친구들과의 관계'와 '학업의 부담'으로 인하여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의 이유는 '친구들이 힘들게 한다'가 32.4%, '공부하기가 지겹다'가 37.2%로 두 가지 원인이 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초등학생 대상자의 흡연유무에서 4.6%가 흡연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31)

일반적 특성	구분	실수(f)	백분율(%)
성별	남	324	51.3
	여	307	48.7
학년	3학년	174	27.6
	4학년	101	16.1
	5학년	180	28.6
	6학년	176	27.7
동거가족	부모님/가족 함께	571	90.5
	아버지만	10	1.6
	어머니만	10	1.6
	형제끼리	3	0.5
	기타	37	5.8
아버지교육수준	대학이상	375	63.2
	고졸	194	30.2
	중졸	21	3.5
	초졸	9	1.5
	기타	32	5.4
어머니교육수준	대학이상	290	45.9
	고졸	222	35.2
	중졸	74	11.3
	초졸	12	2.0
	기타	33	5.6
아버지직업	전문직	41	6.5
	사무직	360	57.1
	상업	113	17.9
	생산직	93	14.7
	기타	24	3.8
어머니직업	전문직	58	9.2
	사무직	85	13.4
	상업	79	12.5
	생산직	40	6.3
	기타	369	58.6
가족흡연자	유	429	67.9
	무	202	32.1
부모님과의 관계	매우 좋다	2	0.3
	좋다	1	0.2
	보통이다	49	7.7
	나쁘다	118	18.7
	매우 나쁘다	461	73.1
학교생활	매우 즐겁다	12	1.9
	즐겁다	10	1.6
	그저 그렇다	113	17.9
	나쁜 편이다	255	40.4
	매우 나쁘다	241	38.2
즐겁지 않다면 이유	친구들 때문에	88	32.4
	선생님이 싫다	9	3.3
	공부가 지겹다	74	37.2
	기타	93	34.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N=631)

일반적 특성	구분	실수(f)	백분율(%)	
흡연 유무	유	29	4.6	
	무	602	95.4	
장래에 담배를 피우면 언제 피울 것인가?	평생 금연하겠다	574	91.0	
	고등학교 졸업 후	33	5.2	
	고등학생	6	0.9	
	중학생	2	0.3	
	무응답	16	2.6	
담배 이름을 알고 있는가?	모른다	330	52.3	
	알고 있다	293	46.4	
	무응답	8	1.3	
술, 담배, 마약, 본드 등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자주 듣는다	68	10.8	
	가끔 듣는다	324	51.3	
학교에서 술, 마약, 본드 등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비디오 시청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가?	들어본 적 없다	239	37.9	
	3학년 때 없다	509	80.7	
	이전	1~2회	34	5.4
		3회 이상	5	1.4
		무응답	79	12.5
	3학년 때 없다	471	74.6	
		1~2회	58	9.2
		3회 이상	19	3.0
		무응답	83	13.2
	4학년 때 없다	449	71.2	
		1~2회	82	12.9
		3회 이상	16	2.6
	무응답	84	13.3	
5학년 때 없다	526	83.4		
	1~2회	17	2.7	
	3회 이상	6	0.9	
	무응답	82	13.0	
6학년 때 없다	509	80.7		
	1~2회	40	6.3	
	3회 이상	24	3.8	
	무응답	58	9.2	
3학년	없다	515	81.6	
이전	1~2회	30	4.7	
	3회 이상	14	2.3	
	무응답	72	11.4	
학교에서 담배에 관한 교육(비디오 시청 포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학년 때 없다	479	75.9	
	1~2회	64	10.1	
	3회 이상	7	1.2	
	무응답	81	12.8	
4학년 때 없다	428	67.8		
	1~2회	112	17.7	
	3회 이상	10	1.0	
	무응답	81	12.8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N=631)

일반적 특성	구분	실수(f)	백분율(%)
학교에서 담배에 관한 교육(비디오 시청 포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5학년 때 없다	523	82.8
	1~2회	25	4.0
	3회 이상	2	0.4
	무응답	81	12.8
6학년 때 없다	511	80.9	
	1~2회	45	7.1
	3회 이상	17	2.8
	무응답	58	9.2

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 흡연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평생 피우지 않겠다'가 91.0%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가 5.2%를 차지하였다. 현재 시중에 시판되는 담배 이름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46.4%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술, 담배, 마약, 본드 등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자주 접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37.9%가 '들어본 적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1.3%가 '가끔 듣는다'고 하였다. 학교에서의 술, 마약, 본드 등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비디오 시청 포함)에 관하여서는 대부분의 학생들 70~80% 정도가 경험이 없었으며, 3, 4학년의 경우 3회 이상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 학생이 3%에 그쳤다. 학교에서의 담배에 관한 교육(비디오 시청 포함) 경험에 관한 질문에도 대부분의 학생(67~83%)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고, 3, 4학년에게서 약 10~19%의 학생들만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흡연에 대한 지식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네 가지 분야에 관한 흡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에서 '흡연이 공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과 '흡연의 정신적 영향에 관한 문항'은 각각 80.8%와 86.5%가 정답을 나타냈다. '담배의 신체

적 유해'에 관한 문항 30.7%, '간접흡연의 유해'에 관한 문항은 49.6%만이 정답을 보여, 흡연에 대한 신체적 유해성과 간접흡연에 대한 지식정도는 비교적 낮았다.

흡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담배는 중독성이 있다'는 85.6%, '담배의 성분 중 담배를 끊지 못하게 하는 물질은 니코틴이다'는 50.4%로 나타났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비흡연가에 비하여 수명이 짧다'는 65.8%,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리기 쉽다'는 89.5%,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면 함께 사는 아이는 지능 발달에 지장이 있다'는 58.6%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담배를 피우면 치아가 상한다'는 49.8%, '담배를 일찍 피우기 시작할수록 습관성이 강해진다'는 70.2% '담배를 피우면 식욕이 저하된다'는 39.1%, '임신한 산모가 담배를 피울 경우 배속에 아이에게 해가 될 것이다'는 91.6%의 매우 높은 정답률을 보여 임신 중 흡연의 유해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흡연에 대한 지식 (N=631)

흡연의 영향 및 유해성	구분	실수(f)	백분율(%)
담배가 공부에 미치는 영향	공부에 도움이 됨	5	0.8
	공부에 방해됨	510	80.8
	관계없음	38	6
	잘 모르겠음	66	10.5
	무응답	12	1.9
담배의 영향	몸에만 해롭다	52	8.2
	정신과 몸에 해롭다	546	86.5
	정신에만 해롭다	3	0.6
	정신과 몸에 모두 해롭지 않다	28	4.4
	무응답	2	0.3
담배가 우리 몸의 기관에 미치는 영향	① 기관지, 폐와 같은 호흡기관	281	44.5
	② 심장, 혈관과 같은 순환기관	55	8.8
	③ 위, 창자와 같은 소화기관	17	2.7
	①, ②, ③ 전체에	194	30.7
	잘 모르겠다	75	11.9
	무응답	9	1.4
간접흡연의 영향	피우지 않는 사람이 더 해롭다	313	49.6
	모두 해롭다.	148	23.5
	피우는 사람이 더 해롭다	151	23.9
	모두 별로 해롭지 않다	10	1.6
	무응답	9	1.4
담배는 중독성이 있다.	540	85.6	
담배의 성분 중 담배를 끊지 못하게 하는 물질은 니코틴이다.	318	50.4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수명이 짧다.	415	65.8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리기 쉽다.	565	89.5	
담배를 피우면 치아가 상한다.	314	49.8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면 함께 사는 아이는 지능 발달에 지장이 있다.	370	58.6	
담배를 일찍 피우기 시작할수록 습관성이 강해진다	443	70.2	
담배를 피우면 식욕이 저하된다.	247	39.1	
담배를 피우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362	57.4	
임신한 산모가 담배를 피울 경우 배속에 아이에게 해가 될 것이다.	578	91.6	

3.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흡연 태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TV에 나오는 배우들의 담배 피우는 장면이 멋있다(13.2%)', '호기심이라면 한번 정도 담배를 피우는 것도 괜찮다'는 7.4%, '나는 미래에 담배를 피울 것이다'는 3.1%로 나타났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화를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다'가 16.6%로 다른 문항에 비해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담배를 피워서 기분이 좋아진다면 피워도 좋다고 생각한다'는 5.0%,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남성(여성)다워 보이게 한다'는 7.3%, '담배를 피우는 것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는 9.8%, '담배를 피우는 것은 취미생활 중 하나이다'는 8.4%, '담배를 피우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된다'는 2.4%, '친구 또는 선배가 권하면 우정과 의리를 생각해서 한번쯤은 피워도 괜찮다'는 5.3%, '담배를 피우면 정신이 맑아져서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0.8%로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흡연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나서 마음먹으

면 끊을 수 있다'는 38.8%로 나타나 아직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이 니코틴 중독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흡연 가족과 흡연친구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흡연 지식 및 태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흡연지식과 태도가 특별히 흡연하는 가족과 친구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가정하고 흡연가족 및 친구 유무에 따른 흡연 지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가족이 흡연을 하는 경우 장래에 흡연을 하겠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t=2.16, p=.03$)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에 대한 지식 정도가 낮은 것($t=-2.28, p=.02$)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에 대한 태도는 흡연에 대하여 더 우호적인 것($t=-4.42, p=.00$)으로 나타나 가족의 흡연유무가 초등학생의 흡연계획,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4>.

흡연을 하는 친구가 있는지에 따른 장래 흡연 계획($t=-0.71, p=.49$), 흡연에 대한 지식($t=0.59, p=.56$), 흡연에 대한 태도($t=0.70, p=.49$)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흡연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 중 '담배를 피우는 것은 취미생활 중

<표 3> 흡연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 분석

(N=631)

흡연에 대한 태도	예	아니오	모르겠다
	f(%)	f(%)	f(%)
1. 담배를 피우는 것은 화를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다.	105(16.6)	296(46.9)	230(36.5)
2. 담배를 피워서 기분이 좋아진다면 피워도 좋다고 생각한다.	31(5.0)	500(79.2)	100(15.8)
3.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남성(여성)다워 보이게 한다.	46(7.3)	448(71.0)	137(21.7)
4. 담배를 피우는 것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62(9.8)	291(46.1)	278(44.1)
5. 담배를 피우는 것은 취미생활 중 하나이다.	53(8.4)	441(69.9)	137(21.7)
6. 담배를 피우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된다.	15(2.4)	517(81.9)	99(15.7)
7. TV에 나오는 배우들의 담배 피우는 장면이 멋있다.	83(13.2)	63(9.9)	485(76.9)
8. 친구 또는 선배가 권하면 우정과 의리를 생각해서 한번쯤은 피워도 괜찮다.	33(5.3)	524(83.0)	74(11.7)
9. 호기심이라면 한번 정도 담배를 피우는 것도 괜찮다.	47(7.4)	504(79.9)	80(12.7)
10.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나서 마음먹으면 끊을 수 있다.	245(38.8)	254(40.3)	132(20.9)
11. 나는 미래에 담배를 피울 것이다.	19(3.1)	546(86.5)	66(10.4)
12. 담배를 피우면 정신이 맑아져서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5(0.8)	573(90.8)	53(8.4)

<표 4> 가족흡연 유무, 흡연친구 유무에 따른 장래 흡연계획,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N=631)

	유		t	p
	M(SD)	무 M(SD)		
장래 흡연계획 여부	1.129(0.524)	1.056(0.306)	2.16	0.03
담배는 중독성이 있다.	0.846(0.362)	0.945(0.377)	-3.13	0.00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면 함께 사는 아이는 지능 발달에 지장이 있다.	0.567(0.496)	0.685(0.466)	-2.87	0.00
가족흡연				
전체 지식점수	0.008(0.043)	0.001(0.046)	-2.28	0.02
담배를 피우는 것은 화를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다.	3.450(1.552)	3.970(1.299)	-4.35	0.00
담배를 피우는 것은 취미생활 중 하나이다.	4.198(1.333)	4.407(1.133)	-2.02	0.04
친구 또는 선배가 권하면 우정과 의리를 생각해서 한번쯤은 피워도 괜찮다.	4.514(1.121)	4.750(0.825)	-2.94	0.00
전체 태도점수	0.096(0.149)	0.044(0.129)	-4.42	0.00
장래 흡연계획 여부	1.090(0.406)	1.200(0.696)	-0.71	0.49
전체 지식점수	0.005(0.042)	0.016(0.077)	0.59	0.56
친구흡연				
담배를 피우는 것은 취미생활 중 하나이다.	4.256(1.289)	4.600(0.821)	-1.80	0.09
TV에 나오는 배우들의 담배피우는 장면이 멋있다.	4.276(1.405)	3.600(1.729)	1.73	0.10
전체 태도점수	0.078(0.145)	0.104(0.164)	0.70	0.49

하나이다(t=-1.80, p=.09)와 'TV에 나오는 배우들의 담배피우는 장면이 멋있다'(t=1.73, p=0.10)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4>.

IV. 논 의

본 연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저연령화되고 있는 청소년흡연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67.9%가 가족흡연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김신정과 양순옥(2002)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아버지의 66.4%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또한 가족흡연자가 있는 경우, 흡연을 암묵적으로 용납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김신정, 양순옥, 2002).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법적인 규제가 가능하지만 가정이나 자동차 등의 개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모가 흡연자들일 경우, 동거하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간접흡연의 영향은

매우 큰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흡연가족과 더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이다(안은아, 홍해숙, 2001).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나쁘다'와 '매우 나쁘다'가 91.9%를 차지하여 조사 대상 초등학생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정연강, 장영미, 1997)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고 온화하지 않을수록, 부모-자녀 간에 친밀성이 없고 의견존중도가 낮을수록 흡연 경험율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간경애와 김영혜(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애정적일 때 자녀의 흡연율이 낮음을 밝힌 바 있어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78.6%가 학교생활에 관하여 '친구들과의 관계'와 '학업의 부담'으로 인하여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초등학생에게 간과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문정순 등, 2000)에서,

학교생활이 즐겁지 못할수록 흡연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친구의 흡연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의 이유는 '친구들이 힘들게 한다'가 32.4%, '공부하기가 지겹다'가 37.2%로 두 가지 원인이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학교생활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도 학생들의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 대상자의 흡연유무에서 4.6%가 흡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타 연구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에서 흡연하는 청소년의 최초 흡연이기는 41.5%가 초등학교 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청소년 흡연율은 약간 낮아졌으나 최초 흡연시작 시기는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헤럴드경제, 2008. 10. 01일자) 초등학생 대상의 적극적인 흡연예방 교육이 시급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장래 흡연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평생 피우지 않겠다' 91%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후'가 5.2%를 차지하여 금연의지가 높을 때, 강력한 흡연예방교육으로 흡연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함을 암시해주고 있다.

술, 담배, 마약, 본드 등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자주 접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37.9%가 '들어본 적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1.3%가 '가끔 듣는다고 하였다. 학교에서의 술, 마약, 본드 등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비디오 시청 포함)에 관하여서는 대부분의 학생들 71~83%가 경험이 없었으며, 3, 4학년의 경우 3회 이상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 학생이 3%에 그쳤다. 흡연청소년의 흡연 시작시기가 4~6학년 때가 29%, 초등학교 3학년 이하가 12.5%에 달하는 결과(헤럴드경제, 2008. 10. 01일자)를 감안할 때, 현재 학교와 대중매체를 통한 흡연예방교육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

다. 미국은 1964년부터 국가적인 금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가 건강목표 중 21가지의 금연관련 목표를 설정하였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17가지의 주기적 흡연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40년 동안의 노력으로 전체인구의 흡연율을 24% 수준까지 낮추는데 성공하였으며 2002년 이후 금연사업은 청소년흡연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정렬, 2003).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본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청소년흡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인흡연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적인 금연사업은 청소년흡연예방에 보다 더 초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출발점을 초등학교로 한다면 대상자의 강력한 동기유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반복 학습을 위한 게임 등이 함께 개발될 필요가(김일옥, 1999; 이은혜, 2000)가 있다.

흡연에 대한 지식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네 가지 분야에 관한 흡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에서 '흡연이 공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과 '흡연의 정신적 영향'에 관한 문항은 각각 80.8%와 86.5%가 정답을 나타냈다. '담배의 신체적 유해'에 관한 문항 30.7%, '간접흡연의 유해'에 관한 문항은 49.6%만이 정답을 보여, 흡연에 대한 신체적 유해성과 간접흡연에 대한 지식정도는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박영규와 강윤주(1996)의 연구, 초등학교 5, 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류황건 등(2002)의 연구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기영(1997)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흡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담배는 중독성이 있다.'는 85.6%, '담배의 성분 중 담배를 끊지 못하게 하는 물질은 니코틴이다.'는 40.5%라는 결과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류황건 등(2002)의 연구결과인 48.6%와 유사하게 나타나 중독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높았

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비흡연가에 비하여 수명이 짧다.’는 65.8%,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리기 쉽다.’는 89.5%,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면 함께 사는 아이는 지능 발달에 지장이 있다.’는 58.6%의 높은 응답율을 보여 류황건 등(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반면, 57.4%의 응답률을 보인 ‘심장병에 대한 영향은 류황건 등(2002)의 연구에서 15.5%를 보여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를 피우면 치아가 상한다.’는 49.8%는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담배를 일찍 피우기 시작할수록 습관성이 강해진다.’는 70.2% ‘담배를 피우면 식욕이 저하된다.’는 39.1%, ‘임신한 산모가 담배를 피울 경우 뱃속에 아이에게 해가 될 것이다.’는 91.6%의 매우 높은 응답율을 보여 임신 중 흡연의 유해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는 준비성(readiness)에 대한 경험을 통해 구조화되는 정신적이고 신경적인 상태이며, 관계된 모든 사물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태도는 잠재적인 행위로 정의된다(Insko, 1967; Thomas, 1971). 따라서 보건교육에서 태도 변화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행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단계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흡연에 대한 태도 조사결과에서 ‘TV에서 배우들의 담배 피우는 장면이 멋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3.2%로 나타났는데, 사회문화 체계적 접근으로 보면 대중매체는 단순히 정보나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일상생활의 주요 환경으로, 한 사회의 가치나 문화체계를 창출해 가는 주체자임을 감안할 때, 특히 청소년의 우상이 되고 있는 배우나 가수들의 흡연 장면은 직접모방의 충동을 느끼게 할 수 있다(신영숙, 현은민, 2000). 따라서 청소년기가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임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방송 매체나 기타 대중매체에서 유명인들의 흡연 장면의 방송은 엄격히 제한되어

야 하겠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화를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16.6%로 다른 문항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주로 주변의 가족이나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흡연동기가 주로 스트레스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그 밖의 문항에 대해서는 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흡연차단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하므로 강력한 흡연예방교육을 통해 이러한 태도를 유지 내지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나서 마음먹으면 끊을 수 있다’는 38.8%로 나타나 아직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이 니코틴 중독의 심각성을 아직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흡연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에서 청소년의 흡연이 막연한 호기심이나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무분별한 의식 등으로 시작되어 점차 만성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한 결과(정혜경, 2001)를 보면, 우려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흡연에 대한 태도는 흡연 여부 결정에 중대한 요인이 된다(김신정, 양순옥, 2002; 신성례, 1997)는 점에서 흡연의 유행성을 적극 알려 정확한 지식과 더불어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 흡연을 하는 경우 장래에 흡연을 하겠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에 대한 지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에 대한 태도는 흡연에 대하여 더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흡연유무가 초등학생의 흡연계획,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가족과 초등학생의 흡연율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진 문정순 등(2000), 박경민과 이충원(2003)의 연구 그리고 중학생 대상의 김신정과

양순옥(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족의 흡연을 낮추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성인보건교육과 금연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암시해주었다.

흡연하는 친구가 있는지에 따른 장래 흡연계획, 흡연에 대한 지식 그리고 흡연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흡연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 중 '담배를 피우는 것은 취미생활 중 하나이다'와 'TV에 나오는 배우들의 담배피우는 장면이 멋있다'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김신정과 양순옥(2002)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흡연 친구의 유무가 흡연에 관한 태도와는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반복연구를 통해 주위에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흡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흡연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 시내 2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학생 각각 2개 학급, 총 63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가족의 67.9%가 가족흡연자를 가지고 있었고, 91.9%가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고 답했으며, 78.6%가 학교생활에 불만족이 있고, 4.6%가 실제 흡연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흡연하기 쉬운 환경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2. 대상자의 37.9%가 담배는 물론, 술, 마약, 본드 등의 물질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자주 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흡연예방 교육에 관하여 67.8~81.6%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3, 4학년 학생들을 10~17%만이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흡연에 관한 지식에서는 임신부흡연과 태아의 관계(91.6%), 부모흡연과 아이 지능과의 관계(89.5%), 담배의 중독성(85.6%), 조기 흡연할수록 강한습관성(79.2%)에서 비교적 높은 정답율을 보였다.
4. 흡연에 관한 태도에서는 '담배가 화를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다(16.6%)', 'TV에 나오는 배우들의 담배피우는 장면이 멋있다(13.2%)', '호기심이라면 한번 정도는 피워도 괜찮다(7.4%)'로 나타났으며, '미래에 담배를 피우겠다'는 3.1%로 흡연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족의 흡연을 하는 경우 장래에 흡연을 하겠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t=2.16, p=.03$)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에 대한 지식 정도가 낮은 것($t=-2.28, p=.02$)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에 대한 태도는 흡연에 대하여 더 우호적인 것($t=-4.42, p=.00$)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흡연차단교육은 흡연에 대한 노출 정도가 적은 초등학교시기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 초등학교 고학년학생의 흡연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어도 3학년년부터 체계적인 학교흡연예방교육이 정규교과과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출발점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한다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력한 동기유발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반복 학습을 위한 게임 등도 함께 개발되어야 하며 초등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흡연가족과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간경애, 김영혜 (2000). 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 경험 실태조사. 아동간호학회지, 6(1), 51-58.
- 김신정, 양순옥 (2002).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아동간호학회지, 8(2), 152-163.
- 김일옥 (1999). 학령전 아동을 위한 호흡기전염병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류향건, 최순연, 김명옥 (2002). 초등학교 학생의 흡연에 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영도연구 4권, 137-155.
- 문정순, 김남초, 양수, 박호란, 송경애, 정승교 (2000). 서울시내 초등학생의 흡연실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4(2); 281-292.
- 박경민, 이충원 (2003). 일개 초등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후 흡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대한보건협회학회지, 29(1), 81-88.
- 박영규, 강윤주 (1996). 학동기 아동의 흡연행동 및 흡연에 대한 지식·태도 조사. 가정의학회지, 17(9), 798-809.
- 신성례 (1997). 흡연 청소년을 위한 자기 조절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영숙, 현은민 (2000). 초등학생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6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75-94.
- 안은아, 홍혜숙 (2001). 초등학생의 흡연 및 간접 흡연 실태. 경북간호학회지, 5(2), 37-58.
- 이기영 (1997). 일부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6(5), 91-98.
- 이은혜 (2000). 초등학생을 위한 흡연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렬 (2003). 청소년흡연예방의 중요성. - <http://www.nosmokeguide.or.kr/data/upload/%EC%B2%AD%EC%86%8C%EB%85%84%>
- 정연강, 장영미 (1994). 학교보건간호를 통한 금연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학교보건학회지, 7(2), 135-143.
- 정혜경 (2001). 고등학교 청소년의 흡연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대한간호학회지, 31(4), 610-61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서울시민 건강증진 목표 설정 및 전략개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헤럴드경제 (2008. 10. 01일자). 청소년 최초 흡연 시기.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4). Guidelines for school health programs to prevent tobacco use and addiction. Journal of school health, 64(9), Georgia: CDC, 353-360.
- Insko, C. A. (1967). Theories of Attitude Change, NY : Appleton Century Crofts.
- Thomas, K. (1971). Attitudes and Behaviour, Penguin Books.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8). The Health report : Life in the 21st century a vision for all. Geneva : WHO.

ABSTRACT

Key Words : Smoking prevention, Elementary student, Health education

The Study on Elementary Students's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of Smoking

Kim, Il Ok*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of elementary students on smoking. **Method:**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by a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a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31 students who are attending elementary schools in Seoul.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 1) 67.9% of subjects have smoking family members, 91.9% of subjects don't have good relation to their parents, 78.6% of subjects have discontented school life and 4.6% of subjects are smoking now. 2) 37.9% of subjects hardly ever experienced education of substance use. There are only 10~17% of subjects have experienced

education of substance use among 3~4th grade students. 3) There is highly right answer rate in "relation between pregnant women and fetus(91.6)", "addiction of smoking((85.6%)" and "earlier smoking stronger addiction(72.9%)". 4) The attitude of smoking is mostly negative, and 3.1% of subjects have future smoking plan. 5) The subjects who have smoking parents more have future smoking plan($t=-2.28$, $p=.02$), more positive attitude for smoking($t=-4.42$, $p=.00$). **Conclusion:** There is needed systematic smoking prevention program for elementary students which fits their knowledge and attitude not later than 3rd. grade, and continual smoking prevention program for adulthood.

*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